

##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신 현 숙\*      이 경 성      이 해 경\*      신 경 수  
전남대      성균관대      한국사이버대      서울소년원

이 연구는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적응문제의 정도가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남녀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전국 소년원에 있는 남녀 비행청소년 258명에게 실시한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의 우울/불안 하위척도와 공격성 하위척도에서 60T점(백분위 85%)을 기준으로 우울/불안 고저 및 공격성 고저 집단을 구성하였다.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개인적 문제 등 다양한 생활적응문제의 영역들에서 청소년이 겪는 문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 평가척도를 실시하였다. 성별과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수준에 따른 생활적응문제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남/녀) × 우울/불안(고/저) × 공격성(고/저)의 3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불안의 수준에 따라서 소년원 청소년들이 가족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및 충동/과다행동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달랐다. 둘째, 공격성의 수준에 따라서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충동/과다행동 및 비행(폭력, 성폭력, 약물비행)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달랐다. 셋째,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충동/과다행동 및 비행의 정도는 우울/불안의 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여자 집단에서는 우울/불안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남녀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남녀 비행청소년들이 비행문제에 더하여 우울/불안 또는 공격성의 문제를 가짐으로써 나타난 합병(comorbidity) 효과에 근거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적응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필요성과 청소년 비행상담의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비행청소년, 적응문제, 우울, 불안, 공격성, 합병

\* 교신저자 : 신현숙,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화 : 062) 530-2354 E-mail : [shinphd@chonnam.ac.kr](mailto:shinphd@chonnam.ac.kr)  
이해경, (151-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동 대교빌딩 4층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육학부,  
전화 : 02) 2102-2221 E-mail : [hglee@mail.kcu.ac](mailto:hglee@mail.kcu.ac)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경찰청, 2002). 특히 1997년 이후에는 학생 100명당 1명은 비행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교육부, 2000). 청소년기 비행은 보통 12, 13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춘기가 끝나는 17세에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03)에 보고된 지난 10년 간 형법범죄를 범한 청소년들의 경향을 보면, 14세 미만의 청소년 수는 대략 38% 감소한 반면에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수는 33% 정도 증가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집단괴롭힘, 학교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등장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예방교육의 개입방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해지고 개입방안에 대한 요청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노력의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개입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청소년기 비행이 개인, 가정, 학교, 사회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으며(이은경, 지승희,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 2003; Blaske, Borduin, Henggeler, & Mann, 1989; Farrington, 1999; Lipsey & Derzon, 1999), 여러 가지 정서문제나 행동문제들과도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곽금주, 문은영, 1993; 김혜영, 2000; Angold, Costello, & Erkanli, 1999). 이와 같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병리적 증상이나 질환이 함께 발생함을 뜻하는 합병(Comorbidity, 공존병리라고도 함)은 비행청소년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비행문제와 더불어 우울/불안 또는 공격성의 문제를 각각 보이거나 또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문제를 모두 보이는 경우를 비행청소년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으로 정의하였다.

Chiles, Miller와 Cox(1980), 그리고 Craighead (1991)

에 따르면, 청소년기 비행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상관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심각한 비행과 공격성은 성인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며(Osgood, Johnson, O'Malley, & Bachman, 1980),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문제는 성인기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Kovacs, 1989), 우울, 불안, 공격성의 문제는 비행청소년의 현재 적응 및 예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인들이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우울, 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우울, 불안의 정신병리와 공격성의 합병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 첫째, 청소년의 공격적 행위, 약물남용, 반항적 행위, 비행, 학습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과다행동 등 외현화된 행동 문제의 기저에는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Chiles et al., 1980). 둘째, 국제질병분류-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 [ICD-10])에서 우울한 품행장애(depressive conduct disorder)가 개별진단범주로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Simic & Fombonne, 2001). 셋째,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공격적 행동, 반항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 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도 더 많이 겪는다(Armistead, Wierson, Forehand, & Frame, 1992). 넷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있어서 우울은 불안장애 뿐만 아니라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와 같은 파단적 행동문제와의 합병도 빈번하다(Angold et al., 1999; Kovacs, Paulauskas, Gatsonis, & Richards, 1988).

국내 비행 연구에서 곽금주와 문은영(1993, 1995)은 우울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영

향력 높은 변인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해경, 이경성, 신현숙(2004b)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성매매 경험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불안, 공격성,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변인의 효과를 밝힌 연구로서, 우울, 불안, 공격성 각 변인의 합병 효과 내지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히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청소년기 비행은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개입과 예방이 중요한 문제 영역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율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들(경찰청, 2002; 교육부, 2000; 법무연수원, 2003)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 상담의 전문성은 부족한 실정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원(2001)이 전국 시도군에 있는 청소년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들은 성격문제, 진로문제, 대인관계문제, 학교부적응문제를 비교적 많이 상담하는 반면에, 비행과 정신건강문제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성격문제나 대인관계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비행과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전략의 한 방법으로, 비행 유형별 상담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지승희, 2002).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가진 합병 문제로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두 변인에서 높고 낮은 수준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적응문제를 보이는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공존여부에 따라서 구분된 남녀 비행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 우울, 불안, 공격성, 비행의 정의

청소년 문제는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분류된다. 내재화 문제는 심리적 문제,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화 증상 등 내재화되고 과잉통제된(overcontrolled) 문제를 뜻하며, 외현화 문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비행 등 외적으로 드러나고 과소통제된(undercontrolled) 문제를 뜻한다(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Achenbach, 1991).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로 우울과 불안을, 외현화 문제로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제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1994)을 보면, 우울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감소, 체중이나 식욕의 감소 또는 수면패턴의 변화, 피로, 무가치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자살사고나 시도가 특징적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우울증도 성인기 우울증과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진단되지만,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일부 발달적 차이점을 드러낸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달리 우울한 기분을 갖기보다는 쉽게 흥분하거나 초조하거나 과민한 기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불안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가장 일반적인 정신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일시적인 공포나 불안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 흔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공포와 걱정이 지나치

고, 회피행동을 보이거나, 전반적 각성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되면, 주관적 고통이 심각해지고 과제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어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게 된다(APA, 1994).

한편 공격성은 난폭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품행장애(conduct disorder)의 한 진단기준이다. 공격성은 분노폭발, 싸움, 습격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강도, 음주, 강간, 도둑질 등의 범법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또한 공격성은 가족, 교사, 또래와의 대인관계문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기질적으로 쉽게 짜증을 내거나 좌절하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또래들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또래관계에서도 문제를 유발한다(Rubin, Coplan, Fox, & Calkin, 1995). Pope와 Bierman(1999)은 또래에게 공격행동을 하는 가해자들은 정서조절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결여되어 있고,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의 결여는 또래와의 갈등을 지속시킨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2004a)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가족, 교사, 또래와의 관계 문제들과 정적 상관을 이룬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들은 공격성이 청소년의 일상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품행장애의 진단기준으로도 포함되는 또 다른 문제행동이 비행이다(APA, 1994). 비행은 심리학적이거나기보다는 법률적 용어로서, 청소년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절도,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을 저지르는 경우와 성인이 했을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 즉 지위비행(예, 무단결석, 가출, 부모에게 반항, 흡연, 음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비행청소년과 우울 및 불안

청소년 비행은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들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김혜영, 2000; 이해경 등, 2004a; 이해경 등, 2004b; Angold et al., 1999; Armistead et al., 1992; Puig-Antich, 1982). 특히 대표적인 정신건강문제인 우울과 불안은 비행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3, 1995; Chiles et al., 1980; Craighead, 1991).

실제로 청소년 우울증 환자의 20%~30%가 문제행동을 보이며(Craighead, 1991), 비행청소년 집단 가운데 대략 4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iles et al., 1980). Puig-Antich(1982)에 의하면, 우울한 청소년들 가운데 대략 30%가 품행장애 진단을 함께 받는다. 또한 청소년의 공격적 행위나 약물남용, 반항적 행위, 비행, 학습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과다행동 등 외현화된 형태로 드러나는 문제들의 기저에는 가면성 우울증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Chiles et al., 1980).

국내의 아동, 청소년기 비행 연구(곽금주, 문은영, 1993, 1995)에서도 우울은 남녀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 청소년들의 비행이 인터넷중독, 가족관계문제, 섭식문제, 또래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진로문제, 공격행동, 교사관계문제, 학교부적응, 충동/과다행동과 정적 상관을 이룬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이해경 등, 2004a; 이해경 등, 2004b).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비행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인터넷 비행과 우울간 관계도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해경, 2002).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아동기에 경험한 성폭력 피해는 우울과 자기비하를 가져오고, 우울과 자기비하감은 곧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한 원인

으로 작용한다(김시업, 2000). 청소년 성매매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접근한 이해경 등(2004b)은 청소년 성매매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간 상관은 우울과 불안간 상관만큼이나 매우 높다는 주장(Angold et al., 1999)과 일치한다.

청소년기 비행은 불안과도 관련성이 높다. 실제로 불안수준만으로 비행 여부를 변별하는 설명력이 66.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장동산, 이길홍, 민병근, 1985).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이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보다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이해경 등, 2004b),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이탈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행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의 수준에는 성차가 있다. 우울경향은 여자와 남자 청소년 모두에게 있어서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여자 비행청소년들이 남자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곽금주, 문은영, 1993). 또한 청소년 비행은 여자집단에서보다 남자집단에서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음란물 시청과 음란채팅에 중독된 비율이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여자 청소년 집단의 약 10배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이해경, 2002), 특정 유형의 비행 발생률에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비행청소년과 공격성

아동기 공격성은 지능만큼이나 안정적인 요인으로서(Olweus, 1978) 청소년기 또는 그 이후에도 유지되며,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행청소년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권위자에게 반항적이고(Smetana, 1990), 분개를 잘하며, 적개심이 높고, 파괴적이고, 충동적이며, 자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arrington, Biron, & LeBlanc, 1982).

국내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 비가해자에 비해 또래괴롭힘, 금품갈취,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위협 등 공격적 행동문제를 더 많이 저지르며(박지도, 최현경, 장우성, 조동환, 김정기, 2001), 공격성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김혜원, 이해경, 2001), 공격성과 비행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매매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공격성이 더 높고 또래괴롭힘의 가해 경험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나(이해경 등, 2004b), 비행과 공격성의 관계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이 비행의 일반적인 증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연령이나 상황변인에 따라서 특정 비행행위들은 다르게 드러난다. 실제로 비행청소년들이 범하는 범죄 행위의 구체적 유형에는 공격성이 포함된 폭력범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재산범이나 과실범도 있어서, 비행청소년들이 모두 공격적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은 약화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한 연구자들(예, Achenbach, 1991; Reynolds & Kamphaus, 1992)도 공격성, 비행 또는 품행문제가 별개의 증후군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신의학적 분류체계(DSM-III)에서는 품행장애의 진단유형을 사회화되지 않은 공격성, 사회화된 공격성, 사회화되지 않은 비공격성, 사회화된 비공격성의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에 근거해 볼 때, 비행과 공격성은 그것이 드러나는 일부 증상들에 있어서 중복되지만 이 둘은 동일한 의

미를 갖는 개념이 아니며, 비행청소년들 가운데 공격적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비행청소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합병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가장 흔한 합병으로는 우울과 불안장애, 그밖에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가 있다(Angold et al., 1999). Angold 등(1999)은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우울증상을 가질 때, 그 이외의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20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도 청소년 우울이나 불안은 비행 문제 또는 범죄와 상관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예, Chiles et al., 1980; Craighead, 1991; Kovacs et al., 1988; Puig-Antich, 1982). 특히 청소년 범죄는 정신건강 문제와의 합병 여부에 따라서, 또는 폭력적, 공격적 행위의 수반 여부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신의학적 분류체계에서는 비행 및 공격성의 문제, 즉 품행문제를 우울증상과 함께 고려하여 진단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Simic과 Fombonne(2001)는 우울한 품행장애에 대한 국제질병분류-10(ICD-10)의 개별 진단 범주가 타당한지를 검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우울한 품행장애 집단은 우울 장애 집단보다 자학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품행 장애 집단보다는 덜 공격적이고 덜 폭력적이나 더욱 현저한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모두 더 많이 겪는다. Armistead 등(1992)은 Quay와 Peterson(1987)의 행동문제 체크리스트(Revised Behavior Problem Checklist [RBPC])에서 측정하는 품행문제, 사회화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불안-위축, 정신병적 행동,

과다행동에 있어서 미국 소년원에 수감된 24명의 청소년들과 이들의 연령, 인종,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유사한 일반 청소년들을 비교한 결과, 소년원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하여 모든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들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Hinden, Compas, Howell과 Achenbach(1997)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 증후군들이 공격 증후군과 비행 증후군에 상이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Frey와 Epkins(2002)는 미국 청소년 보호관찰소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내용과 왜곡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 수준과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모두 높은 비행청소년 집단이 공격성은 높지만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낮은 집단에 비하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등 우울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인지적 왜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합병에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차이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Henggeler, Hanson, Borduin, Watson과 Brunck(1985)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들 가운데 비행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는 불안, 위축, 정신병적 사고와 같은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소년원 청소년 대상의 면접연구에서도 비행행동의 횟수와 심각도에 있어서, 불안한 품행장애 집단과 불안하지 않은 품행장애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Ollendick, Seligman, & Butcher, 1999).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행청소년들이 모두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겪는 정도에 있어서 이질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비

행청소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로 보인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국내연구들(예, 김현수, 김현실, 1997; 김혜영, 2000)에서도 비행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공격성과 우울성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들에서 적응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우울, 불안과 공격성 변인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2001)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근거한 실제적 필요성에 따르기도 한 것이다. 비행과 정신건강의 문제는 청소년기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영역으로서, 청소년 상담자가 청소년의 상담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려면 반드시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주요 공존문제인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이 비행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적응문제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또한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의 정도는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비행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의 정도에 있어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수준에 따른 차이는 성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전국 각 지역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우울/불안<sup>1)</sup> 및 공격성의 고저를 구분하는 기준(K-YSR 하위척도에서 60T점)에 부합하는 소년원 청소년들 가운데 우울, 불안 및 비행의 관련변인으로 알려진 연령, 성별 및 가정의 경제 수준에서 유사한 258명(남자 148명, 여자 11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16.9세( $SD=1.72$ )이었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17.0세( $SD=1.56$ ), 여자의 평균연령은 16.7세( $SD=1.91$ )였다. 연구에 참여한 소년원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행동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이해경 등, 2004a)와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오경자 등, 2001)를 실시하였다.

####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

비행청소년의 적응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이해경 등, 2004a)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부모·교사가 요즘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한 자유반응조사의 결과,

1) 우울과 불안의 상호상관이 높아서 공존병리를 보고한 선행연구(예, Angold et al., 1999)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 실시한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오경자 등, 2001)에서 우울/불안을 단일한 문제행동증후군으로 평가한 점에 근거하여, 우울과 불안을 독립된 문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제로 묶어서 측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남		녀		전체	
	n	%	n	%	n	%
<b>거주지역</b>						
서울	24	9	20	8	44	17
경기	47	18	31	12	78	30
강원	11	4	3	1	14	5
충청	10	4	8	3	18	7
경상	28	11	29	11	57	22
전라	23	9	18	7	41	16
무응답	5	2	1	0	6	2
<b>보호자</b>						
양친부모	41	16	31	12	72	28
편부	40	16	28	11	68	27
편모	28	11	31	12	59	23
무부모	39	15	20	8	59	23
<b>생활수준</b>						
상	4	2	22	9	26	10
중	95	37	69	27	164	63
하	37	14	17	7	54	21
무응답	12	5	2	1	14	6
<b>휴학경험</b>						
있음	50	20	45	17	95	37
없음	93	36	63	24	156	60
무응답	5	2	2	1	7	3
<b>징계경험<sup>a</sup></b>						
있음	61	24	38	15	99	38
없음	82	32	71	28	153	60
무응답	5	2	1	0	6	2
<b>전체</b>	<b>148</b>	<b>57</b>	<b>110</b>	<b>43</b>	<b>258</b>	<b>100</b>

주. <sup>a</sup>교내봉사 및 사회봉사의 명령과 퇴학을 포함.

전문가(상담심리, 임상심리, 청소년발달) 자문,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존의 청소년 정서 및 행동 문제 평가척도들의 검토, 문항양호도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총 10개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124개에 대한 응답은 지난 6개월 동안 각 문항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를 0(전혀 그런 적이 없다)에서 3(항상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에서 평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위척도별 문항 수, 내용과 문항의 예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1에서 .91의 범위에 속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내적 일치도 계수의 범위는 .80에서 .94의 범위에 속하였다. 척도의 원저자들이 보고한 전체 척도의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로 양호하였다. 또한 이 척도와 K-YSR의 하위척도간 상관이 유의하여 척도의 공인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 학생 집단과 임상집단(병원,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실, 소년원에 의뢰된 청소년 집단)간 각 하위척도별 차이가 유의하여 변별타당도도 적절하였다.

### K-YSR

비행청소년의 우울/불안 수준과 공격성 수준에 따라서 우울/불안 고저 집단과 공격성 고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sup>2)</sup>(오경자 등, 2001) 가운데 우울/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16개(예, 외롭다고 말한다, 걱정이

2) K-YSR은 개인 인적 사항을 묻는 문항들, 사회능력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들(사회성, 학업수행), 그리고 문제행동증후군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들(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자해/정체감)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의 하위척도별 문항수, 내용과 문항 예

하위척도	문항수	내 용	문 항 예
가족관계문제	15	• 부모 또는 가족과의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	• 부모가 나를 꾸짖기만 해서 싫다.
또래관계문제	15	• 또래관계 위축이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교사관계문제	11	• 선생님과의 갈등이나 선생님에 대한 반항	• 선생님과 갈등이 있어 전학을 가고 싶다.
학업/주의문제	12	• 학업성취의 저조함이나 주의집중의 어려움	•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진로문제	10	• 진로미결정이나 진로의식의 결여	• 흥미가 계속 바뀌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
학교부적응	16	• 교칙 위반 행위 또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 공부하기가 싫어서 수업을 빼먹는다.
인터넷중독	14	•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내성, 금단, 일상생활 적응상의 어려움	•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
섭식문제	12	• 식사량 조절의 어려움이나 체중 또는 몸매관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	• 음식 먹을 때 먹는 양을 조절하지 못한다.
충동/과다행동	6	• 충동적이거나 과도한 활동수준	•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한다.
비행	13	• 중대한 규칙 위반행위나 반사회적 행위	• 소매치기를 한 적이 있다.

많다)와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 19개(예,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싸운다)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0(전혀 그런 적이 없다)에서 2(자주 그런 적이 있거나 심하다)에 이르는 3점 Likert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우울/불안에서 .84(남자), .85(여자), 공격성에서 .85(남자), .84(여자)이며,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Cronbach's  $\alpha$ 는 우울/불안에서 .84(남자), .86(여자),

공격성에서 .87(남자), .84(여자)였다.

우울/불안과 공격성 수준별 집단구분

K-YSR의 우울/불안 하위척도와 공격성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에 근거하여,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각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이분하였다. 각 하위척도에서 60T점(백분위 85%) 이상을 얻은 비행

표 3. 연구대상의 성별, 우울/불안 및 공격성 수준에 따른 빈도 (%)

성별	우울/불안 저						우울/불안 고						전체	
	공격성 저		공격성 고		전체		공격성 저		공격성 고		전체			
	n	%	n	%	n	%	n	%	n	%	n	%	N	%
남	37	14	37	14	74	28	37	14	37	14	74	28	148	57
녀	27	11	27	11	54	22	28	11	28	11	56	22	110	43
전체	64	25	64	25	128	50	65	25	65	25	130	50	258	100

청소년들은 우울/불안 또는 공격성이 높은 집단으로, 그리고 각 하위척도에서 60T점 미만인 비행청소년들은 우울/불안 또는 공격성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성별,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수준에 따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빈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 절차

2002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전국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필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두 가지의 척도를 완성하는데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조사는 소년원에 근무하는 상담 교사의 지도아래 소집단별로 실시되었으며, 소년원 단위별 책임자가 실시한 설문지를 취합하여 본 연구자에게 우송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AS 8.2로 분석하였다.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에서 산출된 하위척도별 적응문제 평균값 10개와 특정 비행문제(성매매, 인터넷비행, 절도, 폭력, 성폭력, 약물비행)의 평균값 6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과 K-YSR 우울/불안 및 공격성 수준에 따른 집단구분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2(성별: 남녀) × 2(우울/불안: 고저) × 2(공격성: 고저) 3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정 비행문제들 가운데 성폭력 가해의 비행문제는 주로 남자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므로 남자 비행청소년 집단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분석은 2(우울/불안 고저) × 2(공격성 고저)의 2원 분산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우, 남녀 집단 각각에서 단

순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결 과

표 4에는 성,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따른 각 영역별 생활적응문제의 평균을, 표 5에는 분산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산분석은 소년원 청소년들의 성별, 우울/불안 수준 및 공격성 수준에 따른 구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족관계문제에서 약물비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적응문제의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주효과가 학업/주의문제, 학교부적응, 섭식문제, 비행, 그리고 비행의 하위유형들 가운데 절도와 폭력 문제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가족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문제의 영역에서는 소년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학업/주의문제, 학교부적응, 절도 및 폭력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였다. 반면에, 섭식문제와 비행의 전반적인 수준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절도와 폭력의 특정 비행문제에 한정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보였다.

둘째, 공격성의 주효과는 총 16개 적응문제 측정변인들 가운데 11개 변인들에서 유의하였다.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충동/과다행동, 비행, 폭력비행, 성폭력비행 및 약물비행의 영역들에서 공격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

표 4. 남녀 비행청소년들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 수준에 따른 생활적응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적응 문제 변인	성별	우울/불안 저			우울/불안 고			공격성 저	공격성 고	전체
		공격성 저	공격성 고	전체	공격성 저	공격성 고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가족관계문제	남	1.60 (0.36)	1.81 (0.45)	1.70 (0.42)	1.99 (0.48)	2.07 (0.58)	2.03 (0.53)	1.79 (0.46)	1.94 (0.53)	1.87 (0.50)
	녀	1.82 (0.55)	1.80 (0.56)	1.81 (0.55)	1.97 (0.61)	2.05 (0.51)	2.01 (0.56)	1.90 (0.58)	1.93 (0.54)	1.91 (0.56)
또래관계문제	남	1.51 (0.49)	1.93 (0.43)	1.72 (0.50)	2.05 (0.70)	2.30 (0.72)	2.18 (0.72)	1.78 (0.66)	2.11 (0.62)	1.95 (0.66)
	녀	1.69 (0.56)	1.54 (0.49)	1.62 (0.53)	1.82 (0.60)	2.21 (0.65)	2.01 (0.65)	1.76 (0.58)	1.88 (0.66)	1.82 (0.62)
교사관계문제	남	1.72 (0.45)	2.19 (0.46)	1.96 (0.51)	2.25 (0.57)	2.50 (0.64)	2.38 (0.61)	1.99 (0.57)	2.35 (0.57)	2.17 (0.60)
	녀	1.81 (0.42)	2.22 (0.51)	2.01 (0.51)	2.10 (0.48)	2.57 (0.56)	2.34 (0.57)	1.96 (0.47)	2.40 (0.56)	2.18 (0.56)
학업/주의문제	남	1.42 (0.40)	1.50 (0.46)	1.46 (0.43)	1.94 (0.60)	1.92 (0.68)	1.93 (0.64)	1.68 (0.57)	1.71 (0.61)	1.70 (0.59)
	녀	1.33 (0.31)	1.31 (0.34)	1.32 (0.33)	1.62 (0.45)	1.74 (0.52)	1.68 (0.48)	1.48 (0.41)	1.53 (0.49)	1.50 (0.45)
진로문제	남	1.35 (0.26)	1.93 (0.55)	1.64 (0.51)	1.58 (0.57)	2.02 (0.55)	1.80 (0.60)	1.47 (0.46)	1.98 (0.55)	1.72 (0.56)
	녀	1.54 (0.34)	1.99 (0.48)	1.76 (0.47)	1.44 (0.28)	1.88 (0.49)	1.66 (0.45)	1.49 (0.31)	1.93 (0.48)	1.71 (0.46)
학교부적응	남	1.16 (0.18)	1.42 (0.50)	1.29 (0.40)	1.34 (0.59)	1.64 (0.58)	1.49 (0.60)	1.25 (0.44)	1.53 (0.55)	1.39 (0.51)
	녀	1.25 (0.21)	1.26 (0.32)	1.25 (0.27)	1.13 (0.13)	1.36 (0.21)	1.24 (0.21)	1.19 (0.18)	1.31 (0.27)	1.25 (0.24)
인터넷중독	남	1.57 (0.54)	1.98 (0.70)	1.78 (0.66)	1.88 (0.80)	2.18 (0.71)	2.03 (0.77)	1.73 (0.69)	2.08 (0.71)	1.90 (0.72)
	녀	1.64 (0.53)	2.08 (0.76)	1.86 (0.69)	1.84 (0.68)	2.12 (0.89)	1.98 (0.79)	1.74 (0.61)	2.10 (0.82)	1.92 (0.74)
섭식문제	남	1.39 (0.38)	1.62 (0.53)	1.51 (0.47)	1.86 (0.71)	1.91 (0.62)	1.88 (0.66)	1.63 (0.61)	1.76 (0.59)	1.69 (0.60)
	녀	1.99 (0.61)	2.26 (0.64)	2.12 (0.63)	2.29 (0.64)	2.72 (0.53)	2.50 (0.62)	2.14 (0.64)	2.49 (0.62)	2.32 (0.65)
충동/과다행동	남	1.40 (0.35)	1.86 (0.54)	1.63 (0.51)	1.91 (0.62)	2.35 (0.58)	2.13 (0.64)	1.66 (0.57)	2.10 (0.61)	1.88 (0.63)
	녀	1.60 (0.37)	2.00 (0.41)	1.80 (0.43)	1.58 (0.28)	2.25 (0.58)	1.91 (0.56)	1.59 (0.32)	2.13 (0.52)	1.86 (0.50)
비행(전체)	남	1.86 (0.47)	2.42 (0.51)	2.14 (0.56)	2.27 (0.63)	2.56 (0.59)	2.41 (0.62)	2.06 (0.59)	2.49 (0.55)	2.28 (0.61)
	녀	2.33 (0.59)	2.64 (0.53)	2.48 (0.58)	2.18 (0.63)	2.73 (0.71)	2.45 (0.72)	2.25 (0.61)	2.69 (0.62)	2.47 (0.65)
성매매	남	1.08 (0.27)	1.41 (0.76)	1.24 (0.59)	1.22 (0.71)	1.46 (0.69)	1.34 (0.70)	1.15 (0.54)	1.43 (0.72)	1.29 (0.65)
	녀	1.33 (0.73)	1.26 (0.59)	1.30 (0.66)	1.07 (0.26)	1.14 (0.44)	1.11 (0.36)	1.20 (0.55)	1.20 (0.52)	1.20 (0.53)
인터넷비행	남	1.11 (0.20)	1.32 (0.69)	1.21 (0.51)	1.30 (0.62)	1.56 (0.63)	1.43 (0.63)	1.21 (0.46)	1.44 (0.67)	1.32 (0.59)
	녀	1.05 (0.15)	1.06 (0.24)	1.05 (0.20)	1.05 (0.19)	1.14 (0.24)	1.10 (0.22)	1.05 (0.17)	1.10 (0.24)	1.08 (0.21)
절도	남	1.24 (0.54)	1.27 (0.45)	1.26 (0.49)	1.38 (0.82)	1.56 (0.90)	1.47 (0.86)	1.31 (0.70)	1.41 (0.72)	1.36 (0.71)
	녀	1.04 (0.19)	1.11 (0.42)	1.07 (0.32)	1.00 (0.00)	1.11 (0.31)	1.05 (0.22)	1.02 (0.13)	1.11 (0.36)	1.06 (0.28)
폭력	남	1.27 (0.69)	1.49 (0.90)	1.38 (0.80)	1.38 (0.72)	1.92 (0.87)	1.64 (0.83)	1.32 (0.70)	1.70 (0.90)	1.51 (0.83)
	녀	1.22 (0.50)	1.26 (0.52)	1.24 (0.51)	1.18 (0.39)	1.39 (0.73)	1.29 (0.59)	1.20 (0.44)	1.33 (0.63)	1.26 (0.55)
성폭력	남	1.27 (0.56)	1.57 (0.86)	1.42 (0.74)	1.41 (0.76)	1.78 (0.79)	1.59 (0.79)	1.34 (0.66)	1.67 (0.83)	1.50 (0.77)
	녀	1.59 (0.63)	1.44 (0.57)	1.52 (0.60)	1.36 (0.48)	1.71 (0.71)	1.54 (0.63)	1.47 (0.57)	1.58 (0.65)	1.53 (0.61)
약물비행	남	1.19 (0.46)	1.38 (0.68)	1.28 (0.58)	1.46 (0.90)	1.65 (0.94)	1.55 (0.92)	1.32 (0.72)	1.51 (0.83)	1.42 (0.78)
	녀	1.30 (0.54)	1.52 (0.84)	1.41 (0.71)	1.14 (0.44)	1.57 (0.92)	1.36 (0.74)	1.22 (0.49)	1.55 (0.87)	1.38 (0.72)

주.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함.

표 5. 비행청소년들의 성별, 우울/불안 및 공격성 수준에 따른 생활적응문제의 분산분석 결과

적응문제변인	F						
	성(A)	우울/불안(B)	A×B	공격성(C)	A×C	B×C	A×B×C
가족관계문제	0.46	16.45 <sup>***</sup>	1.00	1.78	0.84	0.01	0.76
또래관계문제	3.09 <sup>+</sup>	32.43 <sup>***</sup>	0.15	9.16 <sup>**</sup>	2.00	1.54	5.27 <sup>*</sup>
교사관계문제	0.02	31.74 <sup>***</sup>	0.51	36.95 <sup>***</sup>	0.40	0.37	1.17
학업/주의문제	9.64 <sup>**</sup>	43.77 <sup>***</sup>	0.79	0.39	0.03	0.02	0.89
진로문제	0.03	0.24	5.14 <sup>*</sup>	65.76 <sup>***</sup>	0.32	0.41	0.25
학교부적응	7.42 <sup>**</sup>	3.51 <sup>+</sup>	4.32 <sup>*</sup>	15.30 <sup>***</sup>	2.27	1.36	0.71
인터넷중독	0.03	4.35 <sup>*</sup>	0.52	15.76 <sup>***</sup>	0.00	0.58	0.02
섭식문제	68.73 <sup>***</sup>	25.87 <sup>***</sup>	0.00	10.78 <sup>**</sup>	2.06	0.01	1.38
충동/과다행동	0.13	23.95 <sup>***</sup>	9.67 <sup>**</sup>	61.84 <sup>***</sup>	0.49	1.02	1.47
비행(전체)	6.83 <sup>**</sup>	2.80 <sup>+</sup>	4.25 <sup>*</sup>	33.80 <sup>***</sup>	0.00	0.01	3.19 <sup>+</sup>
성매매	1.39	0.39	3.54 <sup>+</sup>	3.51 <sup>+</sup>	3.58 <sup>+</sup>	0.05	0.56
인터넷비행	18.54	5.36	2.24	6.00	2.54	0.31	0.02
절도	17.39 <sup>***</sup>	1.76	2.61	1.82	0.01	0.41	0.17
폭력	7.84 <sup>**</sup>	3.10 <sup>+</sup>	1.58	7.95 <sup>**</sup>	1.99	1.96	0.16
성폭력 <sup>a</sup>	-	1.92	-	7.23 <sup>**</sup>	-	0.09	-
약물비행	0.15	1.36	2.88 <sup>+</sup>	7.42 <sup>**</sup>	0.52	0.30	0.30

주. <sup>a</sup>남학생 자료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성별 주효과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산출되지 않았음.

<sup>+</sup> $p < .10$ .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로, 공격성의 주효과가 유의한 모든 문제영역들에서 공격성 수준이 높은 비행청소년들은 공격성 수준이 낮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하여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성매매, 인터넷비행 및 절도의 영역들에서는 공격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우울/불안의 주효과는 가족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충동/과다행동의 영역들에

서 유의하였다. 우울/불안의 주효과가 유의한 영역들 7개 모두에서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비행청소년들이 우울/불안의 수준이 낮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하여 문제를 더욱 많이 경험하였다.

넷째, 성별 × 우울/불안의 상호작용 효과가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충동/과다행동, 비행의 문제영역에서 유의하였다. 우선, 충동/과다행동 영역에서는 우울/불안의 주효과와 더불어 성별 × 우울/불안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 비행청소년들이 보이는 충동/과다행동에 미치는 우울/불안

의 합병효과가 성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남자 비행청소년들은 우울/불안의 수준이 낮은 남자 비행청소년들에 비하여 더욱 충동적이며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F(1, 250) = 37.59, p < .001$ . 반면에,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충동/과다행동은 우울/불안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250) = 0.39, ns$ .

그리고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및 비행 영역에서도 충동/과다행동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 비행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불안 수준에 따라서 각 영역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수준이 달랐다,  $F(1, 250) = 4.48, p < .05$ ;  $F(1, 250) = 9.16, p < .01$ ;  $F(1, 250) = 8.19, p < .01$ . 반면에, 여자 비행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불안 수준에 따라서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및 비행의 각 영역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수준이 다르지 않았다,  $F(1, 250) = 1.37, ns$ ;  $F(1, 250) = 0.02, ns$ ;  $F(1, 250) = 0.07, ns$ . 구체적으로,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남자 비행청소년들이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남자 비행청소년들보다 진로문제, 학교부적응문제, 비행문제를 더 많이 겪는 반면에,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우울/불안의 수준에 따라서 각 문제를 겪는 정도가 다르지 않았다.

다섯째, 성별 × 공격성의 상호작용효과와 우울/불안 × 공격성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든 문제영역들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합병효과는 성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합병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성별 × 우울/불안 × 공격성의 3원 상호작용효과가 또래관계문제 영역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또래관계문제 영역에서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합병효과가 성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

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녀 각 집단에서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단순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남자 비행청소년들은 공격성과의 합병여부에 따라서 또래관계문제를 보이는 정도가 달랐다,  $F(1, 250) = 8.85, p < .01$ . 즉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남자 비행청소년들 가운데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은 공격성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또래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반면에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여자 비행청소년들은 공격성 수준에 따라서 또래관계문제 경험의 정도가 다르지 않았다,  $F(1, 250) = 0.79, ns$ .

한편 또래관계문제 영역에서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합병효과는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남녀 비행청소년들에서는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는 공격성의 수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F(1, 250) = 3.36, ns$ . 반면에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여자 비행청소년들이 겪는 또래관계문제는 공격성의 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 250) = 5.88, p < .05$ . 즉, 우울/불안 수준과 공격성 수준이 모두 높은 여자 비행청소년들은 우울/불안 수준은 높지만 공격성 수준이 낮은 여자 비행청소년들에 비하여 또래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적응문제의 정도가 비행의 혼란 합병으로 알려진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별, 우울/불안 및 공격성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생활적응문제의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성별 × 우울/불안 × 공격성의 3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생활적응문제의 정도에 있어서 성차가 유의하였다. 학업/주의문제, 학교부적응, 절도 및 폭력의 문제영역에서는 남자 비행청소년 집단이 여자 비행청소년 집단보다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반면에, 섭식문제와 비행의 전반적인 수준은 남자 집단에서보다 여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예, 광금주, 문은영, 1993, 1995; 오경자 등, 2001; 이해경 등, 2004a)에서는 남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생활적응문제 수준의 성차는 비행청소년 집단에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생활적응문제에 있어서 우울/불안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비행청소년들은 우울/불안의 수준이 낮은 비행청소년들보다 가족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충동/과다행동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공격성이 높은 비행청소년들이 공격성이 낮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하여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충동/과다행동, 비행을 더 많이 겪었다.

성별 × 우울/불안 × 공격성의 상호작용효과는 또래관계문제 영역에서만 유의하였다. 또래관계문제에서 남자 비행청소년들 가운데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만 공격성 수준의 고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공격성 수준의 고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합병이 또래관계문제의 정도에 미치는 효과는 남녀 비행청소년 집단에서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여자 비행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높은 우울/불안은 공격성이 또래관계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공격성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남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개입의 방안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생활적응문제의 정도가 우울/불안이나 공격성의 합병 여부에 따라서 상이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청소년 집단을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고저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비행청소년들 가운데 우울/불안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공격성 수준은 낮은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우울/불안의 문제는 적지만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있고,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문제가 모두 심각한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 집단이 이질적이라는 주장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다. 수감 중인 남자 비행자들의 사례연구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도한 Quay(1964, 1987)에 의하면, 비행은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공격적 행동을 수반하는 비사회화 공격형, 또래비행집단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공격형, 아동기 과다행동장애와 유사한 미숙-관심 결여형, 자신의 문제를 내재화시키는 불안-위축형의 4가지로 구분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비행의 범주화나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비행청소년을 비행문제만을 보이는 동질적 집단으로 판단하기보다

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 문제의 정도에 있어서 상이한 이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가 비행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내재화된 정서적 문제까지도 다각적으로 개입하는데 보다 유용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 비행과 정신건강문제간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예, 광금주, 문은영, 1993, 1995; 김혜영, 2000)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의 평가에 있어서 이들이 동반 증상으로 겪는 우울, 불안과 공격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는 우울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여자 청소년들에서 더욱 빈번하고, 우울은 남녀 모두에서 비행문제의 발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비행과 우울/불안간 상관이 유의함을 밝힌 데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겪는 가족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충동/과다행동의 정도가 우울/불안 수준에 따라서 다르며,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인터넷중독, 섭식문제, 충동/과다행동, 전반적 비행, 폭력, 성폭력, 약물비행의 정도가 공격성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더구나 비행청소년의 또래관계문제는 성별 × 우울/불안 × 공격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서, 남녀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이 또래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울/불안 수준에 따라서 달리 접근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합병효과에 대한 이해는 상담개입 방안의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흔히 청소년 비행상담에서는 비행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회적 비행

(비행 하위문화의 학습, 청소년기 가정의 감독 부재가 원인인 비행), 성격적 비행(양심의 결여, 자기중심적 사고, 타인에 대한 신뢰의 결여, 좌절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원인인 비행), 신경증적 비행(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과 갈등의 표출로서의 비행), 그리고 기질적 비행(정신병에 의한 비행)으로 구분하고, 각 비행 유형에 따른 주요 상담 과제를 구분하고 있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6).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 가운데 우울, 불안이나 공격성의 공존문제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들이 겪는 생활적응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상담전략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청소년 상담자들에게 자문하는 노력이야말로 더욱 실제적이며 유용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겪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생활적응문제에 미치는 합병효과와 성차를 검증하여, 남녀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개입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특정 문제 영역들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또래관계문제 영역에서는 성별 × 우울/불안 × 공격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 비행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관계문제를 평가하고 개입하고자 할 때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더불어 합병효과와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자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을 때 공격성의 합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또래관계문제를 겪으며, 남자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불안 수준이 낮을 때 공격성의 합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또래관계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 상담자는 곤란한 또래관계 상황에서 건설적이며,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도록 조력하는

사회성기술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우울/불안과 공격성 수준이 모두 높은 여자 비행청소년 내담자의 분노와 좌절을 읽어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기감찰 및 자기교수 훈련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국 각 지역의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 가운데 평균연령이 약 17세에 이른 청소년들이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 초기 또는 후기에 속하는 소년원 청소년들이나 일반 학생들 가운데 비행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연령대별(청소년 초, 중, 후기)로 생활적응문제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학생들의 비행 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잠재적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예방상담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 비행청소년들의 우울/불안 수준, 공격성 수준, 생활적응문제의 정도를 모두 청소년 자기-보고형 평가척도에 의존하여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 관한 자료를 청소년 본인의 보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잘 아는 부모나 또래친구의 평가에 의해서 수집하여, 다수의 정보원으로부터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적응 정도에 관한 다각적 이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faking good 반응태세(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게 응답하는 경향성)와 faking bad 반응태세(고의로 나쁘게 보이게 응답하는 경향성)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K-YSR 척도에서 자기-보고한 공격성의

수준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소년원 청소년들은 이미 특정 범죄행위를 저질러 소년원에 의뢰된 비행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의 유형(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등)에 따른 구분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제 폭력이나 성폭력에 의한 범법 사실을 파악하여 공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고, 생활적응문제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비행상담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우울/불안 또는 공격성과 생활적응문제간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비행청소년의 공격적 성향이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의 문제가 유발되는지, 아니면 우울한 비행청소년이 좌절감과 자기비하감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또래간 갈등이 야기되는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비행의 관련 변인 또는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소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답변에 대한 도전을 하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이 중대한 규칙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개인 내적 특성 변인들(예,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불안, 자극추구성향), 비행청소년의 사전 경험 변인들, 비행청소년이 성장해 온 환경 변인들을 역동적 시각에서 확인하며, 이 변인들과 청소년 비행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경찰청 (2002). 경찰백서. 서울.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30.
- 곽금주, 문은영 (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II).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한국 청소년 비행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27.
- 교육부 (2000). *교육통계연보*. 서울.
- 김시업(2000). 청소년 매매춘과 원조교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15-27.
- 김현수, 김현실 (1997). 한국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1), 57-69.
- 김혜영 (2000).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10, 9-31.
- 김혜원, 이해경 (2001).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탐색: 초·중·고등학생 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1), 183-210.
- 박지도, 최현경, 장우성, 조동환, 김정기 (2001). 불량행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병리(V). *신경정신의학*, 40(4), 640-655.
- 법무연수원 (2003). *범죄백서*. 서울.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은경, 지승희,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 (2003). 청소년비행 위험요소·보호요소 척도의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 57-70.
- 이해경 (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 독경험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예측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9(2), 165-190.
-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4a).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47-170.
- 이해경, 이경성, 신현숙 (2004b).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유무를 변별하는 사회심리적 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1(1), 289-305.
- 장동산, 이길홍, 민병근 (1985). 한국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성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의대지*, 10, 405-422.
- 지승희 (2002). *청소년비행 예방 및 개입전략. 청소년비행상담* (pp. 45-82).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대화의광장 (1996). *청소년 비행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청소년 지역상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form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 (DSM-IV)*. Washington, DC: Author.
- Angold, A., Costello, E. J., & Erkanli, A. (1999). Comorbid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1), 57-87.
- Armistead, L., Wierson, M., Forehand, R., & Frame, C. (1992). Psychopathology in incarcerated juvenile delinquents: Does it extend beyond externalizing problems? *Adolescence*, 27, 309-314.
- Blaske, D. M., Borduin, C. M., Henggeler, W. W.,

- & Mann, B. J. (1989). Individual, family, and peer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ex offenders and assaultive offend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846-55.
-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 (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 Craighead, W. E. (1991). Cognitive factors and classification issu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311-326.
- Farrington, D. P. (1999). Implications of criminal career research for the prevention of offending. *Journal of Adolescence*, 13, 93-113.
- Farrington, D. P., Biron, L., & LeBlanc, M. (1982). Personality and delinquency in London and Montreal. In J. C. Gunn & D. P. Farrington (Eds.), *Abnormal offenders: Delinquenc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p. 23-30). New York: Wiley.
- Frey, E. D., & Epkins, C. C. (2002). Examining cognitive model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subgroups of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556-566.
-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les, A., & Hill, J. (1990). Adult outcomes of children and adolescent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 465-473.
- Henggeler, S. W., Hanson, C. L., Borduin, C. M., Watson, S. M., & Brunck, M. A. (1985). Mother-son relationships of juvenile fel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942-943.
- Hinden, B. R., Compas, B. E., Howell, D. C., & Achenbach, T. M. (1997). Covariation of the anxious-depressed syndrome during adolescence: Separating fact from artifa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1), 6-14.
- Kovacs, M. (1989). Affective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 *American Psychologist*, 44, 209-215.
- Kovacs, M., Paulauskas, S., Gatsonis, C., & Richards, C. (198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3.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205-217.
- Lipsey, M. W., & Derzon, J. H. (1999).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pp. 86-105). Thousand Oaks, CA: Sage.
- Ollendick, T. H., Seligman, L. D., & Butcher, A. T. (1999). Does anxiety mitigate the behavioral expression of severe conduct disorder in delinquent youth?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3, 565-574.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Wiley).
- Osgood, D. W., Johnson, L., O'Malley, P., & Bachman, J. (1980). The generality of defiance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81-93.
- Pope, A., & Bierman, K. L. (1999). Predicting adolescent peer problems and antisocial activities: The relative roles of aggress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35-346.
- Puig-Antich, J. (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The Child Psychology, 21*(2), 118-128.
- Quay, H. C. (1964).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delinquent boys as inferred from the factor analysis of case history data. *Child Development, 35*, 479-484.
- Quay, H. C. (1987). Patterns of delinquent behavior. In H. C. Quay (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Wiley.
- Quay, H. C., & Peterson, D. R. (1987). *Manual for the revised behavior problem checklist*. Coral Gables, FL: University of Miami.
- Reynolds, C. R., & Kamphaus, R. W. (1992).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Rubin, K. H., Coplan, R. J., Fox, N. A., & Calkin, S. D. (1995).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logy, 7*, 49-62.
- Simic, M., & Fombonne, E. (2001). Depressive conduct disorder: Symptom patterns and correlates in 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2*, 175-185.
- Smetana, J. G. (1990). Morality and conduct disorders. In L. Lewis & S. M.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157-179). New York: Plenum.
- 원 고 접 수 일 : 2004. 6. 2  
수정원고접수일 : 2004. 7. 16  
게 재 결 정 일 : 2004. 8. 3



## Sex-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omorbidity of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n adjustment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ts

Hyeon-Sook Shin      Kyung-Seong Lee      Hae-Gyoung Lee      Kyong-Soo Shin  
Chonnam Nat'l Univ.      Sung Kyun Kwan Univ.      Korea Cyber Univ.      Seoul Juvenile  
Protection Ed. Ins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orbidity of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n juvenile delinquents' adjustment problems and to test sex differences in the comorbidity effects. Two-hundred fifty-eight juvenile delinquents incarcerated in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K-YSR T scores  $\geq 60$  and  $< 60$  were used for discrimination of high versus low groups. Sex (male vs. female)  $\times$  Depression/Anxiety (high vs. low)  $\times$  Aggression (high vs. low) analyses of variance were conducted, with the scores on the subscales of the Self-Report Form of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ating Scale and specific delinquency items as dependent variables. The main effects of depression/anxiety were significant for problems with family relations, peer relations, relations with teachers, learning/attention problems, internet addiction, eating problems, and impulsivity/hyperactivity. However, the effects of depression/anxiety on career problems, school maladjustment, impulsivity/hyperactivity and delinquenc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only in the male group. In addition, the main effects of aggression were significant for problems with peer relations, relations with teachers, career problems, school maladjustment, internet addiction, eating problems, impulsivity/hyperactivity, delinquency in general, violent delinquency, sex offenses, and substance-related delinquency. The comorbidity effects of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n problems with peer relations differed between the male and female groups. On the basis of the comorbidity effects of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in the sample of incarcerated juvenile delinquents, we discussed the necessity for a more intensive understanding and more comprehensive counseling services for those experiencing various adjustment problems.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ts, adjustment problems, depression, anxiety, aggression, comorbidity